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 주의

아메리카노보다 높아, 표시 개선 필요

원액 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고 특유의 향을 유지할 수 있는 더치커피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유통 중인 대부분의 제품이 카페인 관련 ‘소비자 주의 표시’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고, 일부는 위생 상태도 불량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_지윤아 조사관<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정리_편집실

더치커피

고온의 물로 짧은 시간(3~4분) 내에 추출되는 일반 커피와 달리, 저온의 물로 장시간(3~24시간) 추출함.

더치커피 카페인 함량, 아메리카노의 4배 이상

시중에 판매 중인 더치커피는 제조·판매점의 영업 형태에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커피’ 또는 ‘조리식품’ 유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각각의 미생물 기준 및 규격·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규격화된 제조 시설에서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경우 ‘커피’ 유형에 해당하며, 매장(휴게음식점 등)에서 즉석 제조해 방문한 손님에게 용기에 담아 제공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더치커피 ‘커피’ 유형(27개)과 ‘조리식품(3개)’ 유형의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일반 세균수, 대장균군 등)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7mg/ml)은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mg/ml)의 4배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 아메리카노 1잔(350ml 기준)에 카페인 이 평균 140mg이 포함돼 있지만 더치커피 원액을 물과 3:1의 비율로 희석해 마실 경우(희석액 350ml 기준) 카페인 이 평균 149mg으로 아메리카노 1잔보다 많은 셈이다.

더치커피의 표시실태 개선 필요

이렇듯 카페인 이 100ml당 15mg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음료는 제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 표시 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mg’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 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개(81.5%)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개(28.6%) 제품은 표시 허용 오차 기준(표시 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 이 포함돼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표시 기준 적합 여부

(단위 : 개)

표시 기준	적합	부적합	계
주 표시면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 표시	5	22	27
카페인 취약 계층 주의 문구 표시	13	14	27
카페인 허용 오차(표시 함량의 120% 미만)*	10	4	14

*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제품에 한함.

더치커피 일부, 위생상태 불량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 유형 3개 제품(10.0%)이 일반세균 기준치(1ml 당 100 이하)를 위반(최소 17배~최대 9,900배 초과)했고, 그중 1개 제품은 대장균군(기준치 ‘음성’)도 함께 검출돼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 더치커피는 저온에서 장시간(3~24시간) 추출해 숙성 등의 과정을 거쳐 유통됨에 따라 커피원두·물·용기·작업자 등의 비위생적인 관리가 세균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강화,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

제품명	제조·판매원	용량 (ml)	위생도 시험 결과		제조일자
			일반세균 수 (cfu/ml)	대장균군 (cfu/ml)	
투멤버 (케냐AA)	더치원	1,030	150,000	—	2015. 10. 17
콜드프레소 케냐AA	씨큐브·코디아아이엔티	1,000	990,000	—	2015. 10. 2
딤앤더치 더치커피 (케냐AA)	딤앤더치	500	1,700	양성	2015. 10. 20